

화장실 가기도 빠듯...생리현상 참아가며 운전대 잡는다



준공영제의 그늘 시내버스 기사들

〈상〉불안한 ‘시민의 발’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기사들이 과로와 열악한 노동 조건으로 매일 지옥 문턱을 드나들고 있다.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 14년이 지났음에도, 버스기사의 열악한 운행 실태가 달라지지 않으면서 대형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이 무한정 방치되고 있다.

지하철 공사로 전용차로가 사라지고 도심 차량 속도도 낮아졌지만 시내버스 회사들이 정해놓은 버스 1대 배차 시간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라보니 휴식시간은 커녕, 대소변과 허기짐까지 참아가며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시내버스 기사들이 부지기수다.

사고라도 날 경우 교통사고 처리비를 버스기사에게 덤터기 하는 불공정한 관행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50대 버스기사는 이같은 관행에 힘들어하다 극단적 선택 [광주일보 6월 23일 6면] 을 하기도 했다.

시민의 발 노릇을 하는 시내버스기사들이 불편한데, 시민들은 편할까.

광주일보는 시내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준공영제로 세금을 투입하는데도 바뀌지 않고 있는 기사들의 복지 실태 등을 3차례에 걸쳐 신는다.

“운행 전에 커피요? 줘도 못 줍니다. 물도 마시기 겁나는데, 커피는 무슨?!”

20일 오전 7시께 광주시 남구 송암동 시내버스 임시 차고지에서 만난 시내버스 기사 송연수(58)씨는 커피 한 잔 마시고 출발하자는 기사 요청에 이렇게 반문했다. 송씨는 수완 03번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기사다.

수완 03번 버스는 급행 노선으로, 운행 거리는 38km다. 광주 전체 101개 노선 중 가장 길다.

광산구와 남구 차고지를 출발해 동구, 북구 등 광주지역 4개 구를 돌아다니는데 운행시간만 110분이다. 휴식 시간은 딱히 정해진 건 없지만 요즘엔 꼬박 1시간 50분 동안 허리 한 번 못 펴고 운전대를 잡을 때가 많다. 시내버스 기사들이 가장 기

지하철 공사에 전용차로 사라지고 속도 줄어도 배차시간 그대로

6분간 짧은 휴식 후 운행...“휴식은커녕 물한잔 마시기도 겁나요”

열악한 근무 환경 속 골목길서 생리현상 해결하고 쫓기듯 운전도

피하는 대표 노선이기도 하다.

운행거리도 시내버스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긴데다, 대학교, 고등학교 등 정차하는 정류장이 많아 탑승객 수도 많다. 고된 노동만큼 정신적 피로 감도 높다. 버스에 오르내리는 천태만상 승객들을 모두 감당하며 운행해야 한다.

오전 7시 10분께 송원대를 시작으로 송씨의 버스를 뒀다. 광주대, 동성고, 대성여고, 대광여고 버스승강장을 지나니 탑승객들로 버스가 가득찼다. 대학교·고등학교 방학으로 탑승객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하는데도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송씨는 “탑승객이 많은 흑자 노선이다. 빨간색(급행) 버스이다 보니 정차하는 승강장이 비교적 적어 탑승객들이 많은 편”이라며 “정차하는 승강장은 적지만 탑승객이 많고 운행 거리가 길다보니 빠르게 운행해야 해 신경을 많이 한 두께가 아니다”고 말했다.

송씨를 비롯한 모든 버스기사들이 한시도 맘을 놓아서는 안되는 게 지하철 공사다. 조선대와 산수오거리, 교대 등을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은 갈 때마다 정체를 피하지 못한다. 차선도 좁아져 옆 차선에서 주행 중인 차와 맞닿을 듯 아슬아슬한 운전을 감수해야한다.

송씨는 “최근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시작되면서 버스전용 차로가 사라졌고 차선도 좁아 교통정체도 한층 심해졌는데 운행 시간은 그대로”라고 했다. 회사가 정한 운행 시간인 110분 안에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최근 시행된 안전운전 5030과 어린이보호구역이 늘어나고 과속방지턱 등이 증가한 점도 운행시간에 영향을 미쳤다.

이날도 지하철 2호선 공사 중인 남구청 일대를 지나면서 가다서다, 멈추기를 반복했다.

송씨는 승강장 하나를 통과할 때마다 버스 내부 시계에 눈을 돌렸다. 운행 시간이 길어질수록 휴식 시간은 줄어들 수 밖에 없어 마음이 급할 수 밖에 없다. 휴식시각도 없이 운행했다가 자칫 졸음 운전이라도 하게 될 경우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운행 후 1시간이 지난 오전 8시 10분께야 비로소 경진여고에 도착했다.

이후 송씨는 “출발지로 다시 향해야하는 운행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운행을 서둘렀다. 도착 차고지까지 5개 정류장만 남겨둔 상태였다. 오전 8시 51분, 송씨의 휴대전화 알람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다음 운행 시간인 오전 9시 1분까지 10분 남았다는 신호다. 송씨는 마지막 정거장을 지난 뒤 차고지에 정차하지 않고 곧바로 차를 돌려 다시 운행을 시작했다. 송씨는 “9시 1분에 재출발해야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뒤에 배차된 버스들이 출발하지 못한다”고 했다. 송씨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들어가 생리현상을 해결하고 곧바로 버스에 탑승했다. 결국, 휴식시간은 커녕, 생리 현상도 편히 해결하지 못한 채 다시 1시간 50분을 되돌아가야 하는 셈이다.

송씨 뿐 아니다. 광주 시내버스 기사 2460여명이 이같은 빠듯한 운행 시간을 지기느라 생리현상도 참아가며 운전대를 잡고 있다.

시민의 ‘발’ 노릇을 하는 만큼 시내버스 기사들의 근로조건은 승객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광주시 등 교통당국의 관심은 높지 않다. 준공영제를 내세워 버스기사들의 복리를 위해 일정 비용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정차 버스기사를 근로조건 개선에 사용되지는 여부를 살피지도, 개선하지도 않고 있는 게 현재 실정이다.

이라보니 민원도 끊이지 않는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광주시에 접수된 시내버스 관련 민원은 321건.승강장 통과 137건, 불친절 64건, 승·하차 거부 75건 등이다. “4시간 버스운행을 하면서 허리 한 번 마음대로 못 펴고 식사도 제 때 못하는데 어떻게 시민들 한명만명에게 친절할 수 있겠냐”는 노동계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유다.

전국자동차노조 광주지역버스노조중앙 관계자는 “버스기사의 노동여건은 승객 안전과 직결되지만, 사측과 광주시에서는 운행시간을 늘려 버스 운전 기사들의 휴식을 담보하는 일에는 무관심하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0일 오전 8시께 ‘수완 03번’ 버스 운전기사 송연수씨가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진행 중인 광주시 동구 산수오거리 부근을 지나고 있다.

학동 재개발 철거업체 선정 과정 브로커 개입...억대 금품 오갔다

70대 브로커 구속영장 신청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업체 선정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하고 억대의 금품이 오간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업체 선정 과정에서 오간 돈의 흐름을 쫓고 있다. 붕괴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분석 결과는 이번 주 경찰에 통보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은 20일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 철거·정비기반시설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 수차례에 걸쳐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A(7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 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전 열린다.

경찰이 붕괴사고와 관련, 안전 대책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 외에 재개발사업 계약 및 분양권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은 A씨가 처음이다.

A씨는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철거 및 정비기반시설 업체 등 3곳으로부터 지난 2017년~2019년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돈을 받은 업체들은 재개발사업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법원에 현재 미국으로 도주한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의 개입 정황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받은 금품이 조함 관계자에게 전해졌는지 등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번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분석 내용을 넘겨 받은 뒤 기존 수사 내용을 토대로 붕괴 참사의 원인·경위를 분석,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국과수는 참사 당일부터 수시로 발인 현장 감식 결과를 토대로 붕괴 당시 상황을 재현, 붕괴 전후 상황과 자세한 사고 경위를 검토·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아울러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 결과(8월 8일)도 수사 결과에 반영·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애초 21일로 예정됐던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2명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하루 연기돼 22일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출석 조작·허위 학점...고개 숙인 교수들

10명 첫 재판...“협의 인정합니다”

“협의 인정합니까?”(판사), “예, 인정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교수들)

머리가 희끗한 70대부터 40대 젊은 교수 등 10명의 교수들이 판사의 질문에 모두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조선대 공과대학 교수들로, 동료 교수 이들의 대학원 출석 사실을 조작, 허위로 학점을 주고 부정하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등 학교의 공정한 학업 평가·관리, 학위 수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교수들이 법정에 길게 줄 서 조그만 소법정이 가득 찼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7까지 동료 교수 아들 A(35)씨가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하는 과정에서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A~A 학점을 준 혐의를 받았다. 동료 교수의 아들 한 명을 위해 교수인 아버지를 비롯, 교수 10명이 나서 출석을

인정해주는 특혜 뿐 아니라 고학점을 부여해 석·박사 통합 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를 받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20일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복환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장 질문에 “협의를 인정한다”고 고백했다. 교수들과 교수들 변호인은 20여 분 간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판사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등을 물으며 피고인임을 확인하는 인정 신문 과정에서는 모두 직업을 ‘교수’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들 교수들에 대한 구형에 앞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A씨와 부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다음 재판에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교수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8월 19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아~ 방학이다 20일 오전 광주시 북구 문정초등학교에서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교실을 나가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개>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9타경 68573	1	광주시 북구 동매마을길29 101동 11층 1102호[동림동,로얄산교오동하늘채] 84.6815㎡	아파트	490,000,000	
2021타경 3241	1	광주시 서구 봉암2로84 102동 17층 1701호 [봉암동,한국아파트] 59.965㎡	아파트	161,000,000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21타경 2842	1	광주시 북구 효산로20번길 5-5 단층06.87㎡ 부속단층3.60㎡ 제외와 통로 9㎡	단독주택	133,120,000	일괄매각, 제외와 건물 포함
		광주시 북구 흥룡동 18 128㎡	단독주택	133,120,000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21타경 3074	1	광주시 서구 화정로49번길38 4층 402호 [쌍촌동,쌍촌동도시형생활주택] 16.9685㎡ [매수인에대항할수있는을구소위1번입차권 등기[2018.2.14.등기]있음[임대차보증금5,500만원,전입일자2014.9.17,확정일자 2014.9.17.]]	다세대	53,000,000	배당에서보증금이 53,000,000
					현면전매매수인인수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대지/임야/전답]					
2021타경 66570	1	영광군 영광읍 우령리 산8 3074㎡ [공유자 이우혁지분 1/2전부, 잡목소재및분묘 1기소재, 우가전임야의정상속한관철어려운분묘있음 수있음]	임야	6,301,700	지분매각,공유자 우선매수권1회로 제한
[기타]					
2021타경 1979		선정항:법정길158 선박의종류와명칭:동력선 연식:1984 기종:동력선 선형상:범선형 어선번호:9507038-6468703 원동기형식:육상차량용디젤기관 269.000마력	기타	121,779,000	감정평가액은어업허가권포함가,보관:영광시해동진선박[영광군총동감가마미로99-15]
2021타경 66549	1	2021.8.4. [수] 10:00		121,779,000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 시·군·자치단체에 납입한다. 불합형일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 ② 공유지가 민사소송판결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이반으로 실회되는 경우 그 공유지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표자측인 매수신고인으로 본다.
- ③ 매각기일 : 2021. 8. 4. [수] 10:00
- ④ 매각결정기일 : 2021. 8. 11. [수] 16:00
- ⑤ 최고가매수신고 : 청주시청법정 입찰방장
- ⑥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 ① 최고가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결정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각허가 실시한다. 다만, 매각기일일종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류등은 순위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상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즉각하여 실시한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어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이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 지상권, 동시 설정된 부속보다 먼저 주된특권집임권과 지지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신분을 가진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이다.

② 일반인등의 열악한 제도가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열람세,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편방문 인사접촉(신청)고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매각대금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열람서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이다.

④ 입찰방문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한호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 있는 사람은 입찰보증금 반환을 위임장을 반드시 첨부하고 열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과, 특히 그 중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산입이나 불고, 대금지급이전이나 승낙해상상의 청구를 할 수 없음으로, 관공서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제1차 매각기일과 공고나 비자면 매각물건열람세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1. 7. 21.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정필